

투데이 칼럼

여운

범 죄인류학자인 체사레 롬브로조는 '생태적 범죄론'을 주장하여 과학적 범죄분석 학회에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 상습적 중범죄자는 유전적 요인이나 선천적인 특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즉 선천적으로 범죄적 성격을 타고나는 것으로 가령 머리카기, 이상한 눈, 부풀어 오른 눈, 비이정상적 치아, 매부리코, 평평한 턱, 검은 피부 등으로 롬브로조는 당시 감옥 수형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얼굴, 신체, 성격 등을 조사, 범죄인의 유전적, 신체적 특징을 파악, 이를 통해 범죄를 줄이는 정책에 활용하고자 했다. 그의 이론은 현실의 비판에 직면, 학문적 가치로만 남게되었



홍 민 기
수필가

다. 가령 하버드나 서울대생은 미남미녀나 머리가 월등히 좋은 사람만 같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럼 세상에서 굳이 범죄를 선택하는 사람의 이유가 뭘까? 이는 같은 환경,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특정한 소수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발생한다.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사람, 이들 때문에 롬브로조의 학설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굳이 범죄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소수의 트러블메이커들이 있다. 이들의 의식상황을 살펴보면 준법의식, 책임의식은 물론 성실성, 발전성, 주변과의 원만한 관계에 현저히 뒤떨어진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이기의식이 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향수를 쓰지 않아도 향이 나고 미소에서 넉넉한 인자가 느껴진다. 그들의 아우라는 주변을 파스하

게 하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 쉽게 불법과 폐악에 빠지지 않고, 어렵거나 힘들더라도 기꺼이 섰한 길, 바른 언행, 배려의 인품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그들만이 특별한 존재인가? 화창한 날의 여운은 붉은 노을이다. 해가 산넘어로 떨어지면 하늘의 붉은색은 점차 더 진한 푸른색의 환상을 만든다. 이를 사진작가들은 매직블루아워라 한다. 한 인간이 태어나 살다가 평생을 다하여 지는 여운이 노을이나 이 매직블루아워가 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가! 그것은 아름다운 삶의 당연한 결과이리라. 화창한 하루, 비록 계절이 아니더라도 기억에 새겨진 여행지의 노을이 오늘 이뤄지길 기원해본다.

기고문

“오토바이 헬멧은 내 생명과 같다”

무더운 여름철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헬멧 착용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시기입니다. 헬멧은 단순한 보호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머리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헬멧 미착용 시 사망률은 착용자와 비교해 약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도로 인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가 발생하면 두개골 골절, 뇌출혈,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운행 거리가 짧다는 이유, 배달 업무의 반복성 등 방심에서 오는 헬멧 착용의 소홀함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이어질 때를 생각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 대 범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경사

경찰은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들께서는 사고 위험성을 항상 유의하시고 인증된 안전한 헬멧, 통풍 기능이 강화된 헬멧 등 운행 시 무조건적인 헬멧 착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주세요. 편리함보다는 생명이 우선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리드 결승 경기 펼치는 서채현



서채현이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사모니에서 열린 2025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사모니 월드컵 11차 여자부 리드 결승 경기를 펼치고 있다. 서채현은 44+ 홀드까지 올라 1위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설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동행 호스피스

현대의학은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삶의 질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는 때때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더할 뿐이다.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모두의 숙제다. '호스피스'는 더 이상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죽음과 맞닿은 이들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호스피스는 환자 개개인의 살아온 시간을 지지하고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심한 배려와 정성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다. 수일 내 임종이 임박한 이들 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를 찾는다. 증상이 안정되면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통해 돌

봄을 이어간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잘 보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마음을 다해 작별을 준비했을 때 그 이별은 깊은 상실 속에 서도 따뜻한 기억과 추억을 남긴다. 삶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낮은 이용률과 부족한 전문 인력·시설 문제가 여전하다.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곳에 불과하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103곳(1798병상), 가정형은 39곳, 자문형은 42곳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36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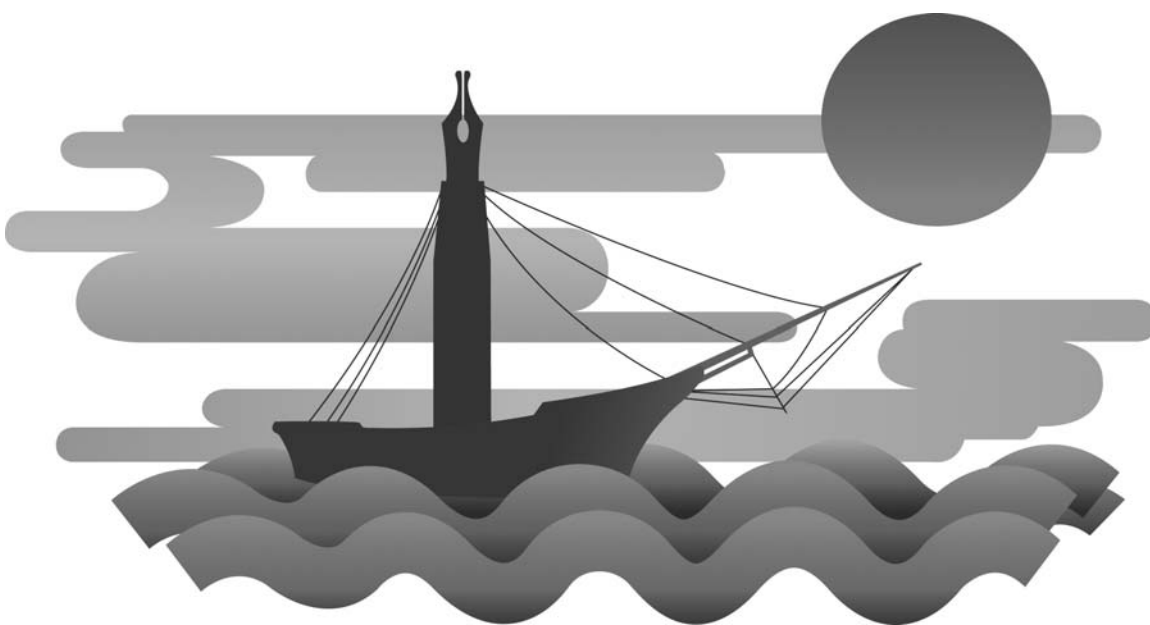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김제 공덕농협이 고구마칩

김제 공덕농협이 자체 개발한 프리미엄 간식 '달콤바삭 고구마칩'이 최근 전국 CU 편의점에 정식으로 입점했다. '달콤바삭 고구마칩'은 공덕농협이 자체 개발한 프리미엄 간식이다. 특히 100% 국내산 고구마를 엄선해 만든 제품으로 벌써부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입점은 전북농협 '구경(9慶)브랜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농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대폭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덕농협은 이번 편의점 입점을 위해 이미 초도물량 약 7톤을 공급했다. '달콤바삭 고구마칩'은 고구마와 아카시아 꿀 등이 첨가됐다. 달콤함과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CU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우수 로코노미(로컬과 이코노미 합성어) 상품이다. 공덕농협은 이 제품을 선정해 전국 유통에 나섰다. 로코노미 트렌드와 건강 간식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문용수 공덕농협 조합장은 "가공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애써 키운 농산물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북의 특별한 고구마 상품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덕농협 달콤바삭 고구마칩'이 번창하여 관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